

敬菴 金魯洙의 『字學考』에 대한 연구

申 相 賢 *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字學考』 편찬의 의의 |
| II. 생애와 『字學考』 편찬 | V. 맺음말 |
| III. 『字學考』의 구성과 내용 | |

<국문 초록>

이 글은 敬菴 金魯洙(1878-1956)가 편찬한 『字學考』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 먼저 편찬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고, 『자학고』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학고』 편찬의 의의를 고찰하였다.

敬菴 金魯洙는 구한말과 일제 시대에 걸쳐 살았던 유학자로 蔚山이 본관이며 河西 金麟厚(1510-1560)의 13대 후손이다. 淵齋 宋秉璿(1836-1905)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溪隱 柳樂淵(?-?) 등 당시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일생동안 性理學을 窮理하였다.

『자학고』는 경암이 67세 때인 1945년 겨울에 편찬된 것으로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던 俗字로 인한 각종 폐해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문자를 통일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경암은 당시에 유통되던 俗例(俗字의 實例)는 이전 시기에 편찬된 『奎章全韻』과 『全韻玉篇』, 혹은 『康熙字典』에서 뒤섞여 나온 것으로 파악하였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운옥편』을 참고하고, 『전운옥편』 가운데 잘못된 것은 『규장전운』을 참고하여 바로잡으며, 『규장전운』 가운데 잘못된 것은 『강희자전』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partizan21@naver.com

을 참고하여 바로잡고 있다. 이것은 『자학고』의 편찬이 『규장전운』과 『전운옥편』에서 제시한 자형을 규범으로 삼아 이를 계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학고』는 크게 上·中·下로 구성되어 있는데, 「字學考上」에는 「字學考小識」와 「字學考義例」, 「訂異」가 수록되어 있고, 「字學考中」에는 「辨似」, 「各部相似字」, 「各部相同字」, 「二字合爲一字類」·「三字合爲一字類」·「四字合爲一字類」·「五字合爲一字類」, 「字體邊旁解義」, 「玉篇字部音義補遺」가 각각 수록되어 있으며, 「字學考下」에는 「古字類聚」가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경암이 『자학고』를 편찬하여 俗例를 정리한 것은 당시에 미군정과 이를 지지하던 세력들에 의해 진행되던 한자 폐기 정책에 반대하고 國漢文併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한자 자형 정리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조선후기 이래로 규범 자서의 역할을 해오던 『규장전운』과 『전운옥편』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규장전운』을 기준 자형으로 삼고, 『전운옥편』과 『강희자전』을 참고로 하여 교정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제어】 金魯洙, 字學考, 俗字, 한자 정리, 규범화, 奎章全韻, 全韻玉篇, 康熙字典

I. 머리말

이 글은 敬菴 金魯洙가 편찬한 『字學考』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 먼저 편찬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고, 『字學考』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그 의의를 고찰하였다.

敬菴 金魯洙(1878-1956)는 구한말과 일제 시대에 걸쳐 살았던 유학자로 蔚山이 본관이며 河西 金麟厚(1510-1560)의 13대 후손이다. 『자학고』는 경암이 67세 때인 1945년 겨울에 편찬된 것으로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던 俗例¹⁾로 인한 각종 폐해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하였으며,

1) ‘俗例’는 ‘俗字의 實例’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맥에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문자를 통일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편찬 과정에서 경암은 正祖 연간에 편찬한 『奎章全韻』을 근본으로 삼고, 『全韻玉篇』과 『康熙字典』을 참고하여 證訂 작업을 실시하는데, 필자는 여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한자의 수용 과정에서 한자의 자형은 되도록 중국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한자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에 치우쳐 文字學보다는 聲韻學이 더 발달하였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 중국에서는 明清의 교체로 인해 중국어 음운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考證學과 文字學의 발달로 다양한 자형의 사용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그대로 조선의 문자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시를 지을 때에 押韻이 다르게 되고, 俗字와 異形字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정확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자의 음과 자형을 규범화하여 공식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는데, 그 최종 결과로서 편찬된 것이 『규장전운』과 『전운옥편』이다.²⁾ 즉 한자의 자형에 대해서 正字와 俗字를 구별하여 수록하고, 당시 중국에서 간행된 『강희자전』을 참고하여 잘못된 자형을 바로 잡음으로써 이후 조선시대 말까지 규범적인 韻書와 字書로서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던 것이다.³⁾

『자학고』는 이전 시기에 『규장전운』과 『전운옥편』이 담당했던 역할을 하고자 편찬하였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즉 근대 개화기 이후 도입된 신식 활자에 의해 새로 표기된 한자 자형과 이전의 한자 자형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는 ‘俗字’라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俗例’를 그대로 사용하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俗字’로 쓰기도 하였다.

2) 줄고, 「18세기 韻書 編纂과 清代 古音學 受容 研究 -특히 『奎章全韻』 편찬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28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07, pp.297-328. 참조.

3) 줄고, 「朝鮮後期 文字言語學 研究 흐름과 字書 編纂」, 『漢字漢文研究』 제5호,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09, pp.187-222. 참조.

규정하지 못하게 되고, 전통 학문이 쇠퇴해지게 되자 신식 활자로 인쇄되는 서적의 교정이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俗字나 異形字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⁴⁾ 다른 점이 있다면, 『자학고』는 개인의 자각과 사명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자학고』의 내용을 분석하고 살펴봄으로써 『자학고』 편찬의 이면에 작용했던 한자의 정리와 규범화의 한 측면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자학고』를 편찬한 敬菴 金魯洙의 생애와 교유관계에 대해서 문집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으로 『자학고』의 편찬 배경과 목적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자학고』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漢字學史에서 『자학고』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 의의를 고찰해 보았다.

II. 생애와 『字學考』 편찬

1. 생애와 교유

敬菴의 생애와 교유 관계는 일제 식민지라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전통 학문의 쇠퇴로 그동안 그리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았던 것 같다. 『敬菴集』에 실려 있는 汕巖 邊時淵(1922-2006)이 쓴 『行狀』과 月城人 李鍾宣(?-?)이 쓴 『墓碣銘』을 중심으로 그의 생애와 교유 관계를 개략해보면 다음과 같다.

敬菴 金魯洙의 본관은 蔚山으로 자는 光彦이고, 敬菴은 그의 호이며,

4) 실제로 19세기 말인 1880년대 이후부터 발간된 서적에서 상당한 오탈자가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32년 朴榮喆에 의해 간행된 『燕巖集』을 다른 판본들과 비교해 보면, 글자의 출입과 오류자가 있음을 기존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 (김명호, 「『燕巖集』 번역에 대하여」, 『大東漢文學』 23집, 대동한문학회, 2005, pp.21-46.; 김혈조, 「燕巖集 異本에 대한 고찰」, 『韓國漢文學研究』 17집, 한국한문학회, 1994, pp.157-189. 참조.)

일명 明洙라고도 하였다. 河西 金麟厚(1510-1560)의 후손으로 부친은 金甲中(?-?)이며 全羅南道 長城郡 黃龍面 畢巖里에서 고종 15년(1878)에 출생하였다.

7세 때 부친이 高敞郡 古水面 平村에 정사를 짓고 칩거하였는데, 부친으로부터 經史와 貢擧와 관련된 공부를 전수받았다. 22세가 되던 1899년에 沃川에서 樓碧亭을 짓고 도학을 강론하던 淵齋 宋秉璿(1836-1905)⁵⁾의 문하에서 ‘經傳의 微奧’와 ‘義理의 精微’를 궁구하여 그 근본을 얻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았으며, ‘敬菴’이라는 호를 받았다.

을사늑약 때 淵齋가 독을 마시고 순국하자 7개월 동안 總麻服을 입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방문하여 영정을 살폈으며, 어떤 때에는 꿈속에서 배알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淵齋가 敬菴에게 주도록 心石 宋秉珣(1839-1912)⁶⁾에게 맡긴 ‘無念爾祖, 聿修厥德’⁷⁾라는 구절을 心石이 다시 크게 써서 주었는데, 이를 다시 옮겨 쓰고는 그 왼쪽 편에 銘을 짓고, 朱子詩 8구를 합하여 항상 벽에 걸어두고 눈으로 보면서 경계하고 살폈다. 1912년에 心石이 순국하자 또 5개월 동안 總麻服을 입었다. 그 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면서 후학을 가르치던 溪隱 柳樂淵(?-?)⁸⁾을 찾아뵙고

5) 宋秉璿 : 본관은 恩津, 자는 華玉, 호가 淵齋이다. 宋時烈의 9세손으로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을사오적의 처형과 조약의 파기와 국권 회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독약을 마시고 자결하였다. 사후 議政에 추증되고 1914년 영동에 文忠祠를 지어 배향하였다. 淵齋集이 있으며, 시호는 文忠이다.

6) 宋秉珣 : 본관은 恩津, 자는 東玉, 호가 心石이다. 宋秉璿의 종제로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나라 잃은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여 討倭의 격문을 작성하여 8도에 돌렸다. 1910년 국권을 상실하게 되자 통분하여 수차 자결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이후 두문불출하여 詩文으로 망국의 슬픔을 달렸다. 1912년 일제가 회유책으로 經學院 강사에 임명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유서를 남긴 뒤 독약을 마시고 자결하였다. 1914년에 왕명으로 영동에 文忠祠를 지어 宋秉璿과 함께 배향하였다.

7) 『詩經』, 「大雅·文王」에 나오는 구절이다.

8) 柳樂淵 : 본관은 高興이다.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에 살다가 아버지 柳鎭龍이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로 이거하였다고 한다. 아들 敬堂 柳相浚

스승처럼 모시면서 학문을 강구하였다.

45세 때인 1923년에 高敞郡 古水面 平村에서 같은 면의 禮智村로 이거하고, 溪隱 柳樂淵을 비롯하여 柳志聖, 李寬範, 柳春錫 등과 교유하며 禮智川 가에 川上亭이라는 작은 정자를 짓고 칩거하며 이름과 행실을 닦았다.

1922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사편찬위원회를 조직하고, 1925년 조선사편수회를 출범시켜 조선사 편찬 작업에 착수하자 별도로 조선의 정사를 편찬하는 것이 시급함을 느끼고 從叔인 芝山 金暲中(1863-1945)⁹⁾을 찾아가 협조를 구하였다. 芝山の 금전적인 후원과 역사에 밝은 海石 金永善(?-?)¹⁰⁾, 健菴 金鏞(?-?) 등 20여 명을 모집하고, 집필을 시작한 지 10여 년 만에 태조 원년(1392)부터 융희 4년(1910) 경술년까지를 편년순으로 정리한 20책의 『朝鮮史』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간행 허가를 위해 일본 경찰에 제출하자 고종과 순종 때의 역사는 삭제되고, 敬菴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여 8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조선사』는 철종 14년까지의 역사를 다룬 17권으로 편찬되어 金暲中의 이름으로 간행되었고, 敬菴은 金佶中(?-?)과 함께 고종과 순종의 역사만을 따로 묶어 『韓鑑綱目』을 묶어 광복 후에 세상에 내놓았다.

67세 때인 1945년에 한문을 폐지하는 정책이 진행되자 국한문병용을 주창하면서 산업 전반과 상업, 학교를 일으키는 것과 인륜을 밝히는 것, 그리고 어진 인재의 등용과 세금, 형벌, 군사, 의술, 종교 등 다방면에 걸쳐 「時務十七條」를 지어 정부에 제출하였으나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또 『字學考』와 『韻彙撮要』를 지어 문자를 통일하는 데에 도움을 주

(1858-1876)과 함께 全齋 任憲晦(1811-1876)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敬堂이 43세로 아버지보다 일찍 죽자 두문불출하며 후학 양성에만 힘썼다.

9) 金暲中 : 본관은 蔚山, 자는 仕仁, 호는 芝山이다. 河西 金麟厚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行鎭安縣監 金堯萊이고, 형은 金祺中이며, 仁村 金性洙의 생부이다. 蔭仕로 벼슬길에 올라 景陵參奉, 孝昌園奉事를 거쳐 秘書丞에 이르렀으며, 덕망과 行誼로 널리 알려졌다. 문집에 『芝山遺稿』가 있다.

10) 金永善 : 구한말의 문인으로 호가 海石이다. 문집에 『海石散稿』가 있다.

고자 하였으며, 경전의 구두와 구결에서 사용하는 글자를 정리하였다.

74세 때인 1951년에는 다시 扶安邑 東中里로 옮겨 살다가 1956년에 百忍堂에서 세상 뜨니 향년 79세였다.

敬菴의 주요 저서로는 『朝鮮史』 17권 17책, 『韓鑑綱目』 상하권 2책, 『河西先生續集』 상하권 2권, 『河西先生言行錄』 1책, 『湛翁風雅』 1책, 『五賢要語·三先生要語』 1책, 『鶴城世蹟』 1책, 『新千字』, 『初學啓蒙』, 『筆岩書院誌』 등이 있으며, 1995년에 손자인 麥堂 金炳采가 敬菴의 詩文과 『敬庵野言』, 『小學續編』, 『洛閑言敬錄』, 『字學考』, 『韻彙撮要』 등을 묶어 理想社에서 『敬庵集』 13권 13책으로 간행하였다.

2. 『字學考』 편찬 배경과 목적

『字學考』는 敬菴이 67세인 1945년 겨울에 편찬하였다.¹¹⁾ 「字學考小識」에 의하면, 『자학고』의 편찬 취지를 문자의 통일에 있다고 하였다.

예를 논의하는 일[議禮], 제도를 만드는 일[制度], 문자를 考正하는 일[考文],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은[三重]¹²⁾ 옛날 聖王이 천하를 다스리는 大法이었다. 후세에 문자를 考正하는 일이 폐하여져 행해지지 않고, 字學은 點畫이 變幻하고 常法이 없어져 (글자의 모양을) 統一할 수 없게 되니, 이것이 어찌 王者의 문자를 같이 하고 서적을 같이 하는 법이겠는가. 이에 감히 깊이 헤아리지 않고 망령되어 『奎章全韻』을 근본으로 하고, 『全韻玉篇』과 『康熙字典』을 참고하여 證訂해서 한 편을 이루니, 지극히 僭踰하여 그 죄를 도망할 곳이 없음을 알지만, 국가가 문자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뜻과 학자의 독서와 글을 쓰는 방편에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도움이 있기를 바란다.¹³⁾

11) 「字學考小識」에 ‘至聖先師孔夫子降生二千五百十五年 歲在乙酉孟冬之月’라고 되어 있어 편찬 연대를 알 수가 있다.

12) 三重 : 王者가 해야 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일. 『中庸』 29章에 “천하에 임금 노릇 하는 데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갖추면 허물이 적을 것이다[王天下, 有三重焉, 其寡過矣乎].”라고 하였다.

13) 『敬菴集』 卷13, 『字學考』·「字學考小識」, “議禮制度考文三重者, 古昔聖王治天

敬菴은 먼저 議禮·制度·考文이 三重의 大法인데 후세로 오면서 이 가운데 考文이 폐하여져 행해지지 않게 되자 字學[한자의 자형]은 點畫이 마음대로 변하여 글자의 모양을 통일할 수 없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를 통일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전 시기인 正祖 연간에 편찬한 『규장전운』을 근본으로 삼고, 『전운옥편』과 『강희자전』을 참고하여 證訂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자학고』를 편찬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字學考義例」에서는 조선의 字書는 御定の 『규장전운』과 『전운옥편』이 있는데, 『규장전운』은 古[古字]를 따르고 『전운옥편』은 俗[俗字]를 따랐으므로 字學은 마땅히 『규장전운』을 本과 正으로 해야 한다¹⁴⁾고 하였으며, 또 비록 『규장전운』과 『전운옥편』이 있으나 위로부터 문자를 考正하는 법도를 행하지 않게 되어 公私의 여러 서적에는 誤訛가 더욱 심해졌으며, 털끝만큼의 차이가 천 가지로 틀려져 그 폐해가 끝이 없으므로 잘못된 글자를 바로 잡기 위하여 『자학고』를 짓는다¹⁵⁾고 하였다.

이어서 교감의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당시에 유통되던 俗例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규장전운』과 『전운옥편』, 『강희자전』에서 뒤섞여 나왔으므로 俗例 가운데 잘못된 것은 『전운옥편』으로 바로잡고, 『전운옥편』 가운데 잘못된 것은 『규장전운』으로 바로잡으며, 『규장전운』 가운데 잘못된 것은 『강희자전』으로 바로잡는다¹⁶⁾고 하였다.

下之大法也. 後世考文之法, 廢而不行, 字學點畫, 變幻無常, 不得統一, 是豈王者同文同書之典哉. 茲敢不揆妄加證訂, 本諸奎韻, 參以玉篇字典, 以就一編, 極知僭踰, 無所逃罪, 然於國家同文一統之義, 學者讀書寫字之方, 庶幾有補於萬一云.”

14) 『敬菴集』 卷13, 『字學考』·「字學考義例」, “朝鮮字書, 有御定奎章全韻及全韻玉篇, 而奎韻從古, 玉篇從俗, 字學當以奎韻爲本爲正.”

15) 『敬菴集』 卷13, 『字學考』·「字學考義例」, “雖有奎玉二書, 而自上不行考文之政, 故內閣經傳板本, 已失其眞, 而公私諸書, 誤訛益甚, 差毫謬千, 其弊無窮, 此考之所以作也.”

이러한 점들로 볼 때 敬菴은 구한말과 일제 시대를 거치는 동안 한자의 자형이 문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서적에서 誤字와 訛字가 발생하였다고 여겼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俗例의 다량 유통을 한자 자형 문란의 주범으로 보았으며, 大篆과 小篆이 변하여 八分과 隸書가 되듯이 세상의 사정은 날로 간편함을 추구하기¹⁷⁾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참작하여 절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Ⅲ. 『字學考』의 구성과 내용

『자학고』는 크게 上·中·下로 구성되어 있다. 「字學考上」에는 「字學考小識」과 「字學考義例」에서 편찬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본문에 해당하는 「訂異」가 수록되어 있다. 「字學考中」에는 「辨似」, 「各部相似字」, 「各部相同字」, 「二字合爲一字類」, 「三字合爲一字類」, 「四字合爲一字類」, 「五字合爲一字類」, 「字體邊旁解義」, 「玉篇字部音義補遺」가 각각 수록되어 있으며, 「字學考下」에는 「古字類聚」가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이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1. 訂異

「字學考義例」에서 訂異는 그 點畫이 서로 다른 것을 바로 잡은 것¹⁸⁾이라고 하였다. 즉 기준이 되는 한자가 점이나 획의 증감에 의해 俗例를 형성하였을 경우에 그 용례를 제시하고 바로 잡은 것이라고 하겠다. 앞

16) 『敬菴集』 卷13, 『字學考』·「字學考義例」, “俗例之誤者, 以玉篇正之, 玉篇之誤者, 以奎韻正之, 奎韻之誤者, 以字典正之.”

17) 『敬菴集』 卷13, 『字學考』·「字學考義例」, “自大小篆之變, 爲八分隸書, 世情日趨於簡便, 筆苑鉅手, 金石之刻, 已失真面, 況又流俗之滔滔乎?”

18) 『敬菴集』 卷13, 『字學考』·「字學考義例」, “訂異者, 訂其點畫之相異也.”

에서도 언급하였듯이 敬菴은 俗例가 『규장전운』과 『전운옥편』, 『강희자전』에서 뒤섞여 나와서 형성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한자는 『규장전운』과 『전운옥편』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 두 서적 사이에서 글자의 모양이 달라진 것과 俗例와 차이가 있는 한자를 서로 대조하면서 교정 작업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부수 순으로 배열하였는데 약 700여자를 수록하였다.

내용의 일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奎韻	玉篇	俗例		奎韻	玉篇	俗例
一部	丈	全	丈		世	世	世
ノ部	久	全	久		乖	全	乖
乙部	亂	全	亂乱古		乍	全	乍
丨部	丰	彗慧邦豐峯逢之類皆從丰, 俗從丰誤					
二部	互	全	亘				
一	享	全	亨享		亨	全	亨
	亥	亥	全		壹	壹	全從壹者全
人部	仄	全	仄		佞	全	佞
	來	來	来来		伏	全	伏誤 地名
	介爾全	介爾全	全		佩	全	佩
	保	保	全		修	修	全從攸者全
	侵	全	侵		俎	全	俎
	備	備	備備備		但	全	但
	僉	全	僉僉		今	全	今
	余	全	余		令	全	令
	僭	全	僭誤		傳	傳	全
	候	候	全		儀	全	儀誤付全
	侯	全	侯		倉	全	倉
	兌	全	兌				

入部	亾	全	亡		全	全	全
	內	全	丙		兩	兩	兩兩
	兪	全	俞				
儿部	尢	全	尢		尢	全	尢
八部	其	其	全		具	具	具
	兼	全	兼		冀	冀	冀
冂部	冊	冊	丹		冒	全	冒
	冪	全	冪		冕	全	冕冕
	冉	全	冉		冉再冪冪稱之類 / 冪冪冪冪冪冪之類		
宀部	冤	全	冤		冥	全	冥
	宀	全	宀誤從宀者皆全		采	全	采
<하략>							

표에서 보듯이 『규장전운』과 『전운옥편』의 한자가 같을 경우도 있고, 다를 경우도 있는데,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 기준을 『규장전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俗例에서 제시한 한자 전체를 오자로 본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의미가 통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來’자의 경우, 『규장전운』과 『전운옥편』의 자형이 틀릴 뿐만 아니라 俗例 ‘來’와 ‘來’도 각각 다르지만, 이들 자형을 오자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당시에 많이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儀’자의 俗例로 제시한 ‘儀’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오자로 표기하고, 그 근거로 ‘付와 동자[付尢]’임을 병기하였다. 또 같은 자형을 일괄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한 경우에는 ‘~之類’로 표기하였는데, 예를 들어 ‘冉’자는 ‘冉冪冪稱之類’의 유형에 모두 해당하고[冉, 冉冪冪稱之類], ‘冪’자는 ‘冪冪冪冪冪冪之類’의 유형에 모두 해당한다[冪, 冪冪冪冪冪冪之類]고 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訂異에서 제시한 한자는 당시에 유통되던 俗例, 즉 한자 俗字의 實例를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한자는 1차로 『전운옥편』에서 취하고, 『전운옥편』과 『규장전운』의 자형이 다를 경우에는 『전운옥편』의 자형을 취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俗字의 무분별한 사용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辨似

『字學考義例』에서 辨似是 그 樣式이 서로 비슷한 것을 분별한 것¹⁹⁾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각각의 글자가 서로 비슷한 경우 쉽게 변별할 수 있도록 서로 대조하여 제시한 것이다. 약 2,000여 자의 한자를 2자 또는 3자씩 한 쌍으로 묶어서 획수 순으로 배열하였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乙 - 乚, 乞 - 𠂇, ㄷ - ㄸ, 匕 - 𠂇, 厶 - 厶, 卩 - 卩
 土 - 土, 子 - 子, 大 - 丈, 夕 - 夕, 卅 - 卅, 尸 - 尸
 几 - 几 - 几, 冫 - 冫 - 冫, 勺 - 勺 - 勺

辨似에서는 이렇게 비슷한 글자를 한 쌍으로 묶어서 제시함으로써 한자를 기록할 때에 쉽게 구분을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匕’자와 ‘𠂇’자는 일상적으로 틀리게 쓰기 쉬운데, ‘𠂇’자를 ‘化의 古字[化古]’로 정의함으로써 ‘匕’자와 ‘𠂇’자가 다른 글자임을 인지하게 하여 틀리지 않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3. 各部相似字

19) 『敬菴集』 卷13, 『字學考』·『字學考義例』, “辨似者, 辨其樣式之相似也.”

‘各部相似字’는 모양과 의미가 비슷한 부수자에 의해 형성된 비슷한 모양의 한자를 쉽게 변별할 수 있도록 서로 대조한 것으로 920자의 한자를 2자씩 한 쌍으로 묶어서 모두 460組를 제시하고 있다. 변별 대상이 되는 부수자로는 ‘亻-彳’, ‘彳-彳’, ‘日-目’, ‘扌-木’, ‘木-禾’, ‘禾-示’, ‘示-衣’, ‘竹-艸’, ‘土-玉’이며, 부수자가 바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한자와 의미가 그대로인 한자를 구별하여 작은 글자로 표기를 하였다. 각 부수별로 해당하는 글자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亻 彳 部相似字(66자 33조)

亻-行, 伏-伏, 仿-仿, 俳-俳, 徊-徊, 徑-徑, 佯-佯, 倘-倘, 佛-佛, 伶-伶, 偕-偕 등

· 彳 彳 部相似字(44자 22조)

冲-冲, 凌-凌, 次-次, 泮-泮, 治-治, 凋-凋, 冷-冷, 冽-冽, 洛-洛, 凍-凍, 淞-淞 등

· 日 目 部相似字(50자 25조)

昧-昧, 晴-晴, 曉-曉, 盱-盱, 睪-明, 睇-睇, 睨-睨, 睽-睽, 暖-暖, 曩-曩, 瞳-瞳 등

· 扌 木 部相似字(346자 173조)

把-把, 扎-扎, 抖-抖, 柄-柄, 折-折, 桴-桴, 按-按, 拷-拷, 桎-桎, 拮-拮 등

· 木 禾 部相似字(148자 74조)

枯-枯, 枰-枰, 移-移, 柘-柘, 柚-柚, 枰-枰, 桐-桐, 柜-柜, 杞-杞, 租-租, 杆-杆 등

· 禾 示 部相似字(20자 10조)

租-租, 福-福, 祗-祗, 稹-稹, 穢-穢, 稹-稹, 秧-秧, 穰-穰, 穰-穰, 秘-秘

· 示 衣 部相似字(28자 14조)

裸-裸, 祗-祗, 褻-褻, 禍-禍, 褻-褻, 褻-褻, 祗-祗, 禱-禱, 禱-禱, 禱-禱, 褻-褻, 褻-褻, 褻-褻, 褻-褻, 褻-褻, 褻-褻

· 竹 艸 部相似字(156자 78조)

笄-芘, 筆-芘, 筭-芘, 笈-芘, 第-芘, 笈-芘, 笈-芘, 笈-芘, 笈-芘, 笈-芘 등
 ·土玉部相似字(62자 31조)
 圯-圯, 坡-坡, 珂-珂, 坪-坪, 玷-玷, 桃-桃, 埋-埋, 琅-琅, 琦-琦, 基-基, 埤-埤 등

4. 各部相同字

‘各部相同字’는 의미가 비슷한 부수자에 의해 형성된 한자가 서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2자씩 한 쌍으로 묶어서 제시한 것으로 모두 415자의 한자를 수록하였다. 대상이 된 부수자로는 ‘口-欠’, ‘口-言’, ‘土-阝’, ‘犴-豸’, ‘目-見’, ‘走-足’, ‘隹-鳥’, ‘革-韋’이며, 부수자는 아니지만 ‘㚒’·‘辵’·‘豸’가 포함된 한자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각 부수별로 해당하는 글자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口欠部相同字(34자 17조)
 咳-欬, 哈-欲, 唉-歛, 喘-歛, 嘆-歎, 嘔-歎, 嘔-歎, 向-歛, 啼-歛, 嗽-歛 등

·口言部相同字(174자 87조)
 哌-訛, 叱-訛, 吶-訛, 咀-詛, 喋-詛, 呵-訛, 咏-詠, 呪-詛, 啣-詢, 咨-諮 등

·土阝部相同字(64자 32조)
 坑-阡, 坂-阪, 垓-阡, 培-陷, 堤-隄, 培-階, 塢-隄, 墜-隄, 坊-防, 址-陞 등

·犴豸部相同字(28자 14조)
 犴-犴, 狽-犽, 狐-狐, 狻-狻, 狻-狻, 狻-狻, 狻-狻, 狻-狻, 狻-狻, 狻-狻
 猙-猙, 猙-猙, 猙-猙, 猙-猙

·目見部相同字(8자 4조)
 謁-謁, 矚-矚, 矚-矚, 矚-矚

·走足部相同字(14자 7조)
 跣-跣, 跣-跣, 跣-跣, 跣-跣, 躡-躡, 躡-躡, 躡-躡

·佳鳥部相同字(36자 18조)

隹-鳩, 雁-鴈, 雁-鴈, 雉-鳩, 雄-鳩, 雄-鳩, 隹-鳩, 雄-鳩, 雄-鳩, 雄-鳩 등

·革韋部相同字(16자 8조)

韋-韋, 韋-韋, 韋-韋, 韋-韋, 韋-韋, 韋-韋, 韋-韋, 韋-韋

·鼠部相同字(15자)

鼠-鼠, 鼠-鼠, 鼠-鼠, 鼠-鼠, 鼠-鼠, 鼠-鼠 등

·辵部相同字(10자)

辵-辵, 辵-辵, 辵-辵, 辵-辵, 辵-辵, 辵-辵, 辵-辵, 辵-辵

·穀部相同字(16자)

穀-穀, 穀-穀, 穀-穀, 穀-穀, 穀-穀, 穀-穀, 穀-穀, 穀-穀

5. 合爲一字類

‘合爲一字類’는 같은 글자를 상하, 좌우 또는 내외로 중복시켜 새로운 의미의 한자를 형성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2자·3자·4자·5자를 겹쳐서 만든 한자 129자를 각각 ‘二字合爲一字類’, ‘三字合爲一字類’, ‘四字合爲一字類’, ‘五字合爲一字類’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二字合爲一字類(56자)

二, 串, 𠂇, 𠂇, 𠂇, 呂, 哥, 喆, 回, 圭, 多, 出, 开, 𠂇, 朋, 林, 炎 등

·三字合爲一字類(58자)

衆, 嘉, 𠂇, 轟, 轟, 磊, 犇, 𠂇, 𠂇, 品, 姦, 森, 𠂇 등

·四字合爲一字類(7자)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7. 玉篇字部音義補遺

『전운옥편』에 수록된 부수자 가운데 그 음과 뜻이 불명확한 한자 58 자에 대하여 『강희자전』을 전거로 삼아 음과 뜻을 정의하였다.

鬃 長髮也 垂髮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鬃 鬃也
--------------------------------------	--------------------------------------	--------------------------------------	--------------------------------------	--------------------------------------	--------------------------------------	--------------------------------------	--------------------------------------	--------------------------------------	--------------------------------------

8. 古字類聚

敬菴은 「字學考義例」에서 “『전운옥편』의 자수는 『강희자전』의 반에 지나지 않아서 怪僻하여 사용하지 않는 글자도 오히려 다 刪削하지 않고 뒷부분에 두었다”²⁰⁾고 하였는데, 古字類聚는 『강희자전』에 수록된 怪

20) 『敬菴集』 卷13, 『字學考』·「字學考義例」, “玉篇字數, 不過字典之半, 而怪僻不用之字, 猶未盡刪後之, 君子當更加刊正.”

僻字 또는 古字를 획수별로 정리하여 수록한 것이다.

○七化○匱極○匱匱○卑華林叔廿曠直○廐辰厓厓麻曆	冥冀翼景○処處○冢蒙○沅大風觀麓風○勳勳○勳勳協○幽塊	夬冰佻份斌彬倉施众依冢佇岡侶似命甲兪允允先會陰叢	二畫部 夬冰佻份斌彬倉施众依冢佇岡侶似命甲兪允允先會陰叢	亂舉亓佛書萬全可巧	丑西中幽龜下六下且丹上上大有卜卜才垂乱亂季手古	死死并天壹部此部不計邊荀付之一畫 死死并天壹部此部不計邊荀付之一畫	古字類聚攷據字典 敬菴居士金曾洙編訂	字學考下
--------------------------	-----------------------------	--------------------------	---------------------------------	-----------	-------------------------	--------------------------------------	-----------------------	------

IV. 『字學考』 편찬의 의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한자의 수용 과정에서 한자의 자형은 되도록이면 중국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한자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에 치우쳐 文字學보다는 聲韻學이 더 발달하여 독자적인 운서가 편찬되었다. 그리고 간혹 운서에 수록된 글자를 檢字하기 위해 顧野王(519-581)이 편찬한 『玉篇』의 부수에 의한 배열 방법을 응용하여 일종의 운서 檢字書로서의 ‘韻書 玉篇’을 편찬하는 정도였다.²¹⁾

21)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韻書 玉篇으로는 조선전기에 崔世珍(1468-1542)이 중종 31년(1536)에 원나라 熊忠이 편찬한 『古今韻會舉要』에 수록된 글자를 부

그런데 정조 연간에 李德懋(1741-1793)의 주도 아래 편찬된 『규장전운』과 『전운옥편』의 경우는 극히 드물게 한자의 자형에 대해서 正字와 俗字를 구별하여 수록하고, 당시 중국에서 간행된 『강희자전』을 참고로 하여 잘못된 자형을 바로 잡고 있다. 「全韻玉篇義例」에 의하면, 『전운옥편』은 『강희자전』에 의거하여 分部하고, 그 註脚을 간추리고, 編帙을 간략하게 하여 상고하고 열람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²²⁾고 밝히고 있다. 또 글자의 자형에 있어서는 籀文·俗字·同字·通用字는 모두 『규장전운』에 의거하고 『강희자전』과 『字彙』를 참고하여 證正하였다²³⁾고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전운옥편』은 단순히 『규장전운』에 수록된 글자를 檢字하기 위한 단순한 ‘韻書 玉篇’이 아니라 규범적인 자형을 제시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전운옥편』은 黃泌秀가 다시 『강희자전』에 근거하여 다시 교정한 것을 1898년(고종 36)에 『校訂 全韻玉篇』으로 간행하고, 隆熙 3년(1909)에 海文新書局에서 다시 간행하여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된다. 또 근대의 대표적 자전인 『字典釋要』²⁴⁾와 『新字典』²⁵⁾을 비롯하여 이후로 편찬되는 玉篇類 자서가 모두 『전운옥편』의 형태를 띠고 있다.²⁶⁾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字學考』의 편찬도 기본적으로는 『규장전운』과 『전운옥편』을 편찬한 취지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와 획수로 재배열한 『韻會玉篇』 2권을 편찬하였고, 조선후기에는 洪啓禧(1703-1771)가 『三韻聲彙』(1751)의 옥편인 『三韻聲彙補玉篇』를 편찬하였으며, 李德懋의 주도 아래 편찬된 『奎章全韻』(1800)의 옥편인 『全韻玉篇』이 있는 정도이다.

- 22) 李晚秀, 『履園遺稿』 卷6, 『賜笏集』·「全韻玉篇義例」, “此書分部一依字典, 節其註脚, 簡其編帙, 以便考覽.”
- 23) 李晚秀, 위의 책, “籀文俗字或同或通, 皆倣奎韻, 參之字典字彙以證正.”
- 24) 『字典釋要』는 池錫永이 1906년에 상하 2권으로 편찬을 완료하고, 1909년에 匯東書館에서 발행하였다.
- 25) 『新字典』은 朝鮮光文會에서 1915년에 편찬한 근대적 자전으로 柳瑾의 주관 하에 李寅承, 南基元의 도움으로 편찬되었다.
- 26) 줄고, 「朝鮮後期 文字言語學 研究 흐름과 字書 編纂」, 앞의 논문, pp.187-222. 참조.

수 있다. 근대 개화기 이후 서양식 인쇄기술과 신식 활자의 도입으로 서적과 신문이 다량으로 발간되어 짧은 시간에 보급됨에 따라 지식의 형성과 전파는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하게 하는데, 신식 활자에 의해 새로 표기된 한자 자형과 이전의 한자 자형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규정하지 못하자 규범화된 한자 자형 사용에 대한 인식이 열어졌다는 것이다.²⁷⁾ 여기에 또 국한문혼용과 전통 한학의 쇠퇴로 교정과 교열 작업이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俗字나 異形字, 또는 異體字를 사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²⁸⁾ 당시의 이러한 상황을 경암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1945년에 이르자 한문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고자 하는 정책이 진행되는데, 경암은 이에 반대하여 國漢文併用을 주창하면서 「時務十七條」를 지어 정부에 제출하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게 된다. 이때의 심정을 경암은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倭夷의 시대에 우리 道가 비록 큰 재앙에 빠져 있었지만, 저들은 우리와 종족이 같았고 문자가 같았고 가르침이 같았기 때문에, 한편으로 공자를 높이고 한편으로 한문을 배웠다. 지금 저들[미군정]과 우리는 종족도 다르고 문자도 다르고 가르침도 달라서, 공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한문이 어떤 글자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新學하는 무식한 무리가 또 佞鬼 같은 앞잡이가 되어 음만 있고 뜻이 없는 언문만 배우자고 하니, 한문은 금하지 않아도 절로 금해지게 되었다.
(중략)

지금 우리 한국은 焚書坑儒를 하지 않아도 가르치는 이가 없고 배우는 이가 없어 결국에는 가시 울타리 가의 물건처럼 쓸모없이 되어 자연히 없어질 것이니, 그 화가 혹독하고 매운 것이 진나라 政[秦始皇]의 때보다 만 배는 된다. 하

27) 규범화의 입장에서 볼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校訂 全韻玉篇』, 『字典釋要』, 『新字典』이 편찬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한자 자형의 실제 사용에서 강제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28) 각주 4)번 참조.

늘이 斯文을 도우사 속히 建國하여 다시 거의 끊어진 文과 거의 어두워진 道를 회복해 주기를 원한다. 천만 피눈물 흘리며 기원하는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다.²⁹⁾

경암은 당시에 진행되던 한문 폐기 정책이 민군정과 그들 편에 서서 신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무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 정책이 시행되면 진시황의 분서갱유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새로 건국되는 나라에서는 국한문병용을 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같은 해 겨울에 『자학고』를 편찬하였다는 것을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 국한문병용을 위해 당시에 한자 자형이 어떠한 양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작업을 선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고, 그 작업의 일환으로 당시에 다량으로 유통되던 俗例俗字의 實例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한자의 자형을 통일시키고 규범화함으로써 문자의 혼란으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겼던 것은 아닐까.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자학고』는 조선후기 이래로 규범 자서의 역할을 해오던 『규장전운』과 『전운옥편』의 전통을 이어서 일제 시대에 문란해진 한자의 자형을 통일시켜 규범화하고자 한 작업의 결과물로 볼 수가 있다. 다만 기존에는 그러한 작업을 국가에서 담당하였으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문자를 考正하는 일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자각과 사명감으로 직접 실례를 조사하여 정리하지 않으면

29) 『敬菴集』, 「敬菴野言」, “倭夷時代, 吾道雖陽九, 彼與我同種同文同教, 故一邊尊孔子, 一邊習漢文. 今則彼人與我, 種異文異教異, 不知孔子爲何許人, 漢文爲何等字, 而新學無知輩, 又爲佞鬼以導之, 只習有音無意之諺文, 而漢文則不禁而自禁. …… 今我韓則不坑不焚, 無教無學, 歸之於筵籬邊物, 而自然亡滅, 其禍之酷且烈, 萬倍於秦政時. 惟願天相斯文, 速爲建國, 更復幾絕之文, 幾晦之道. 不勝千萬瀝血泣祝之至”

안 되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조 연간에 편찬한 『규장전운』을 기준 자형으로 삼았으며, 『전운옥편』과 『강희자전』을 참고로 하여 證訂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자학교』가 편찬되었다고 하겠다.

V. 맺음말

이상의 논의에서 敬菴 金魯洙가 67세 때인 1945년 겨울에 편찬한 『字學考』의 편찬 목적과 내용, 그리고 그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자학교』 편찬의 목적은 당시에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던 俗字로 인한 각종 폐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한자를 통일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경암은 당시에 유통되던 俗例(俗字의 實例)는 이전 시기에 편찬된 『규장전운』과 『전운옥편』, 혹은 『강희자전』에서 뒤섞여 나온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운옥편』을 참고하고, 『전운옥편』 가운데 잘못된 것은 『규장전운』을 참고하여 바로잡으며, 『규장전운』 가운데 잘못된 것은 『강희자전』을 참고하여 바로잡고 있다. 이것은 『자학교』의 편찬이 기본적으로 『규장전운』과 『전운옥편』에서 제시한 자형을 규범으로 삼아 이를 계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학교』는 크게 上·中·下로 구성되어 있다. 「字學考上」에는 「字學考小識」와 「字學考義例」, 點畫이 서로 다른 글자를 바로 잡은 「訂異」가 수록되어 있다. 이어서 「字學考中」에는 모양이 서로 비슷한 글자를 제시하여 대조하여 변별할 수 있도록 한 「辨似」, 모양과 의미가 비슷한 부수자에 의해 형성된 비슷한 모양의 한자를 쉽게 변별할 수 있도록 서로 대조한 「各部相似字」, 의미가 비슷한 부수자에 의해 형성된 한자가 서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를 2자씩 한 쌍으로 묶어서 제시한 「各部相同字」, 같은 글자를 상하좌우 또는 내외로 중복시켜 새로운 의미의 한자를 형성한 경우인 「二字合爲一字類」·「三字合爲一字類」·「四字合爲

一字類」·「五字合爲一字類」, 부수자가 아니면서 한자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사용되는 글자들을 모아서 그 의미를 풀이한 「字體邊旁解義」, 『전운옥편』에 수록된 부수자 가운데 그 음과 뜻이 불명확한 한자 58자에 대하여 『강희자전』을 전거로 삼아 음과 뜻을 정의한 「玉篇字部音義補遺」가 각각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字學考下」에는 「古字類聚」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희자전』에 수록된 怪僻字 또는 古字를 획수별로 정리하여 수록한 것이다.

이와 같이 경암이 『자학고』를 편찬하여 俗例를 정리한 것은 당시에 진행되던 한자 폐기 정책에 반대하고 國漢文併用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한자 자형 정리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암은 당시에 다량으로 유통되던 俗例를 정리하여 한자의 자형을 통일시켜 규범화함으로써 문자의 혼란으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조선후기에 한자의 음과 자형을 정리하여 규범화한 『규장전운』과 『전운옥편』의 편찬 취지와 전통을 이었다고 하겠는데, 다만 기존에는 국가에서 이러한 작업을 담당하였으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개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실제로 『자학고』 편찬에서는 『규장전운』을 근본으로 삼고, 『전운옥편』과 『강희자전』을 참고하여 證訂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參考 文獻>

- 金魯洙, 『敬菴集』, 대전: 回想社, 1961.
- 李晩秀, 『屐園遺稿』(韓國文集叢刊268輯), 民族文化推進會, 2000.
- 柳瑾 等編, 『新字典』, 朝鮮光文會, 1915.
- 張玉書 等編, 『康熙字典』(영인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6.
- 正祖 命撰, 『奎章全韻』(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대전: 학민문화사, 1998.
- 池錫永 編, 『字典釋要』, 匯東書館, 1909.
- 黃泌秀 編, 『校訂 全韻玉篇』, 海文新書局, 1890.
-
- 김명호, 「『燕巖集』 번역에 대하여」, 『大東漢文學』 23집, 대동한문학회, 2005.
- 김철조, 「燕巖集 異本에 대한 고찰」, 『韓國漢文學研究』 17집, 한국한문학회, 1994.
- 申相賢, 「18세기 韻書 編纂과 清代 古音學 受容 研究 -특히 『奎章全韻』 편찬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28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07.
- , 「朝鮮後期 文字言語學 研究 흐름과 字書 編纂」, 『漢字漢文研究』 제5호,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09.
- 田日周, 『韓國 漢字字典 研究』, 대구: 중문출판사, 2003.
- 정경일, 『한국운서의 이해』, 서울: 아카넷, 2003.
- , 『규장전운·전운옥편』, 서울: 신구문화사, 2008.

Abstract

*A Study of Gyeong'am Kim Nosu's "Jahakgo" / Shin Sang Hyun**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compilation; analyzes the structure and content, and last, considers the significance of “Jahakgo” 字學考 written by Gyeong'am 敬菴 Kim Nosu 金魯洙 (1878-1956). Gyeong'am is the 13th descendant of the renowned scholar Kim Inhoo 金麟厚 (1510-1560). He was a Confucian scholar originally from Ulsan, lived through the end of the Chosun Dynasty and Japanese Occupation. He studied under Song Byungseon (1836-1905), and was associated with Yoon Nak Yeon and scholars of that time. “Jahakgo” was published in the winter of 1945 when Gyeong'am was 67 in order to rid of the harmful effects caused by the mass distribution of various forms of sokja (secular form of Chinese character); it helped the country standardize the characters. At that time, he realized that sokja circulated massively as “Kyujang-jeonun” 奎章全韻, “Chonun-okpyeon” 全韻玉篇, and “Kangxi-zidian” 康熙字典 were used concurrently. To rectify this, he referred to “Kyujang-jeonun” to correct mistakes found in “Chonun-okpyeon”; and referred to “Kangxi-zidian” for the mistakes found in “Kyujang-jeonun”. The compilation of “Jahakgo” is significant in that it reveals that the character form in “Kyujang-jeonun” and “Chonun-okpyeon” should be made as standard. He compiled “Jahakgo” in order to oppose the policies abolishing classical Chinese writing installed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MIGK) and those powers supporting the USMIGK. It can also be seen as a part of the foundational references of Korean-Classical Chinese Mixed Script 國漢文併用. We can see that since the late Chosun Dynasty, “Kyujang-jeonun” and

* Researcher of KU Institute of Koean Culture / partizan21@naver.com

“Chonun-okpyeon” has continued with tradition and kept the role of a standard preface. However, in actuality, “Kyujang-jeonun” is used as the primary, and “Chonun-okpyeon” and “Kangxi-zidian” as references, in revisions.

【Key words】 Kim Nosu, Jahakgo, sokja, standardization, Kyujang-jeonun, Chonun-okpyeon, Kangxi-zidian

투고일 : 5월 3일, 심사일 : 6월 6일, 게재확정일 : 6월 13일